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153
JCCT 2018-2-18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최은영*

Choi, Eun-Young*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를 파악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전문직업으로서의 성장을 통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4곳의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중간정도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 중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 존중 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은 중간정도로 나타났고, 소명의식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반영한 간호윤리 지침서를 개발하여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상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를 제언한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 교육을 계획할 때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강조하여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어 : 윤리적 딜레마, 전문직업성, 요양병원, 간호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es'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in long-term care hospital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10 nurses working in 14 long-term care hospital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 WIN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thical dilemma of the nurse was moderate. The highest sub-area was 'nurse-patient relationship' and 'respect of life and human rights' was the lowest sub-area. The professionalism of the subjects was moderate, and the score of 'sense of mission' area was the lowest. Nursing ethics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 the ethical dilemma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will provide the right values for the ethical dilemma that nurses face in their workplace. When planning the nurses' professionalism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enhance the sense of mission by emphasizing beliefs and values about nursing care.

Key words : Ethical Dilemma, Professionalism,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의 증가라는 건강문제를 초래하였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 이후로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이 활성화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7년 3/4분기 요양병원기관 현황'에 따

*정회원,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 2017년 12월 15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7일

Received: September 15, 2017 / Revised: January 5, 2018
Accepted: January 27, 2018
*Corresponding Author: seraphinac@hanmail.net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수는 1,519개이며, 2006년 12월에 361개소였던 것이 10년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2006년 3,186명에서 2017년 24,299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상자는 일반 급성기 환자와 다르게 장기요양과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이 많고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만족스러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윤리적 문제 또는 동등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딜레마를 말한다[2]. 최근의 보건의료현장은 다양한 가치들이 생겨나고, 환자의 권리 의식은 신장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예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윤리적 딜레마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3].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직면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적절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할 경우, 의료진과의 상호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 간호지식, 경험부족으로 인한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며[2], 여러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답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은 과감히 부딪히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고[8], 이로 인해 좌절하거나 불만족, 육체적 질병 등을 경험하게 된다[4]. 특히 요양병원의 환경은 간호사들에게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하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별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 자신이 윤리적 딜레마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9]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봉사심, 자기통제에 대한 신뢰, 자신의 직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가지는 전문인으로서의 인식, 업

무내용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 등을 의미한다[10].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환자에게 건강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하며[10-12], 윤리적 지식을 갖추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환자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지지해 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요양병원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은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속한 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호업무, 근무환경, 조직의 특성 등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13],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를 파악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전문직업성의 성장을 통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7년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G광역시 및 J지역 14개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상관관계를 위한 대상자 수를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1-\beta)=0.90$, 효과크기 $=0.3$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09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예상하여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회수되지 못한 32부와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8부를 제외한 총 21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윤리적 딜레마

본 연구에서는 Han[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명존중과 인간의 권리존중(7문항), 간호사와

대상자(6문항),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13문항), 간호사와 협동자(7문항)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심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의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전문직업성

본 연구에서는 Hall[14]의 도구를 근거로 Choo[15]가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율성(6문항),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4문항), 공공봉사심(6문항), 전문조직에의 준거성(6문항), 소명의식(6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ll[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Choo[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딜레마, 전문직업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중도 거부 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소요 시간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76(± 10.06)세이고, 40세 이상이 51.4%를 차지하였으며 90.0%가 여성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8.1%이고, 종교는 57.1%가 없었으며,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52.4%로 나타났다. 임상실무경력은 5년 미만인 44.8%이었고, 82.9%가 일반간호사였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71.9%이었다. 급여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44.8%이었고, 이직경험은 70.5%가 있었으며 앞으로 근무계획은 41.9%의 간호사가 5년 미만을 예상하고 있었다.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는 65.7%가 내용은 알지 못하나 있다는 것은 안다고 하였고, 윤리적 딜레마 경험시 상담대상으로 동료나 선후배 간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다. 윤리적 딜레마 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꼭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가 93.4%로 나타났고, 대학 졸업 후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가 63.8%이었으며, 윤리교육의 필요성에서는 95.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는 총점 4점 중 평균 2.3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존중 2.27점, 간호사와 대상자 2.47점,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2.38점, 간호사와 협동자 2.34점이었 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존중 영역에서는 '장기매매에 대한 회의'가 2.65점, '생명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2.52점이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할 경우'가 2.24점, '임종환자의 안락사 문제'는 2.25점이었 다.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서는 '말기 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가 2.50점,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이냐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2.47점이었고, '환자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2.09점, '생명구조책과 신앙사이에서의 갈등' 2.31점이었 다.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영역에서는 '원칙에 어긋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2.63점, '적절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2.60점이었고, '환자의 요구와 의사의 지시 사이의 갈등', '의사의 약물처방에 대한 회의', '의사의 지시에 대한 의문'이 각각 2.35점이었 다. 간호사와 협동

자 영역에서는 ‘의료진과의 상호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 2.42점, ‘동료의 무균술 불이행을 목격하고도 방치해야 하는 경우’ 2.36점이었고, ‘간호전문대와 간호학과 졸업생 사이의 갈등’ 1.96점, ‘간호사, 보호자, 환자, 타부서와의 관계’ 2.24점이었다.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은 총점 5점 중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자율성 3.25점, 자기통제성에 대한 믿음 3.47점, 공공봉사심 3.28점, 전문조직에의 준거성 3.33점, 소명의식 3.16점이었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자율성 영역에서는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3.46점, ‘나는 내가 해야 할 간호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한다’ 3.32점이었고, ‘나는 업무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3.18점이었다. 자기통제성에 대한 믿음 영역에서는 ‘간호사들은 주위 동료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3.47점, ‘내 주위의 간호사들은 서로의 실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3.42점이었고, ‘나는 동료간호사들의 업무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 3.11점이었다. 공공봉사심 영역은 ‘간호사는 반드시 사회에서 있어야 할 직업이다’ 3.90점, ‘간호사는 다른 직업보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3.56점이었고, ‘동료간호사 대부분은 간호사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3.04점이었다. 전문조직에의 준거성 영역에서는 ‘나를 비롯한 동료 간호사들 대부분은 간호협회에 가입해있다’ 3.87점, ‘간호전문가조직에서 마련한 보수교육은 받아야 한다’ 3.61점이었고, ‘나는 틈틈이 간호전문 서적이거나 간호학회지(논문)을 읽고 있다’ 2.78점,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0점, ‘업무의 정보교환을 위해 동료 간호사들과의 모임이 자주 있다’ 2.89점이었다. 소명의식 영역에서는 ‘나는 간호사로서 직업적 사명감이 높다’ 3.37점, ‘내가 아는 간호사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3.29점이었고,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나는 간호사로 계속 일 할 것이다’ 2.89점, ‘내게 꼭 맞는 직업은 다른 아닌 간호사이다’ 3.01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는 연령($t=3.19$, $p=.002$), 결혼상태($t=-3.11$, $p=.002$), 급여수준($t=-3.14$, $p=.002$), 이직경험($t=-2.14$, $p=.034$), 앞으로의 근무계획($t=3.09$,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세 미만, 결혼상태는 미혼, 급여수준은 200만원 이상, 이직경험이 있고, 앞으로 근무계획이 5년 미만인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종교($t=-2.71$, $p=.007$), 최종학력($t=-2.08$, $p=.039$), 직위($t=-2.29$, $p=.023$), 급여수준($t=-2.48$,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없고, 대학교 졸업 이상, 관리자급 이상, 급여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의 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는 전문직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윤리적 딜레마는 전문직업성의 하부영역에서 자율성,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 공공봉사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인간생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은 윤리강령의 내용까지 아는 대상자가 30.5%로 윤리강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윤리적 딜레마 경험시 상담대상으로 동료나 선후배 간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다. 이는 Lee와 Yoo[16]의 연구에서의 63.7%보다는 높았지만, Yang과 Oh[17]의 연구에서의 80.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 경험 시에 스스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더 쉽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95.7%로 매우 높았으나,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경우는 36.2%에 그쳐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거나 자발적인 참여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윤리교육 후에 간호사들이 자주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감소되었고[18],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19], 간호사에게 체계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그 바탕으로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6]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간호윤리 및 가치관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는 평균평점은 2.39점으로 Yang과 Oh[17], Park과 Kim[4]의 연구에서의 2.44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명확하게 낮은 편이 아니므로 향후에 병원유형에 따른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비교해보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적 딜레마 하부 영역에서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가장 높았고,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간호사와 협동자,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 존중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윤리적 딜레마 하위영역 중에서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던 Park과 Kim[4]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전문직 업무 영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Yang과 Oh[17], Lee와 Yoo[16]의 연구, 간호사와 협동자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Jung과 Moon[20]의 연구,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 존중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 Kang[5]의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고,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지나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의 윤리적 문제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 등으로 실제 간호현장에서 대상자 영역의 구체적인 딜레마 사례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근본원인을 해결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Park[7]은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제한과 판단이 어려운 상황,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노출시킬 수 없는 의료인의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하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기방어적 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an[2]은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뿐만 아니라 병원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경험을 통해서 대처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 자신이 윤리적 딜레마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하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윤리적 의사결정 시 분명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17]. 따라서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업무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윤리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딜레마 감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부문항별로 보면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서는 ‘말기 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와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말기 환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간호사들이 말기환자의 질적인 삶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호자나 의료인의 결정은 추후에 가족의 죄책감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환자와 의사와 가족 모두가 합의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가 이들의 입장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와 전문직업무 영역에서는 ‘적절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원칙에 어긋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2.6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Lee와 Yoo[16], Yang과 Oh[17]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문항으로 나타나 병원간호사들에게 간호인력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고 적절한 인력의 배치가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를 낮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21]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정책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Park[7]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제도적 관행과 제도적 우선주의로 인해 윤리적 간호를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사결정권이 없어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간호수행상의 문제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업무는 독립적인 업무, 의존적인 업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의존적 업무시 처방에 의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존중 영역에서는 ‘장기매매에 대한 회의’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매매는 뇌사와 안락사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윤리적 딜레마이므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와 고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들은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을 때의 장기기증이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하여 ‘환자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부당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고, 가족이 장기기증의 목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나 간호를 거부할 때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간호사로서 윤리적인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22].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은 특성상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를 많이 접하게 되어 삶과 죽음의 문제, 환자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황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나가는 지지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사와 협동자 영역에서는 ‘의료진과의 상호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과 ‘동료의 무균술 불이행을 목격하고도 방치해야 하는 경우’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dman과 Fry[23]는 건강정책상의 제약과 간호사-의사간의 갈등을 윤리적 딜레마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고, Park[7]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의사들의 무성의한 행태와 의료인의 실수를 증언하지 못함으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와 공범의식 및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간호사는 환자를 잘못된 의료로부터 보호할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의사에 비해 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환자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더 잘 알고 있다[24]. 따라서 환자의 담당의사와 간호사, 타부서 의료인들이 모여서 환자에 대한 치료방침이나 환자의 요구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와 간호사, 타부서 의료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의사에게 요구된다. 동료 간호사와의 관계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상황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실수를 은폐하고 그 횡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의 갈등으로 해석된다. 특히 무균술의 불이행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실무교육을 통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는 40세 미만, 미혼, 200만원 이상의 급여, 이직경험이 있고, 앞으로 근무계획이 5년 미만인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Kim[4], Lee와 Yoo[1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이 미혼보다,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높아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속한 환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직경험이 있고, 앞으로 근무계획이 5년 미만인 간호사들이 윤리적 판단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윤리적 딜레마를 낮추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업성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태도로서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은 평균평점 3.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Lim[25]의 연구에서의 3.38점과 비슷하였으나 대학병원과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o[15]의 연구에서의 3.69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하부 영역별로는 자기통제성에 대한 믿음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소명의식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o[15]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심이 가장 높고 소명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Hwang과 Lim[25]의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전문조직에의 준거성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연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소속된 병원의 유형과 업무환경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의 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전문직업성 교육을 계획할 때에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강조하여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를 비롯한 동료 간호사들 대부분은 간호협회에 가입해있다’와 ‘간호사는 반드시 사회에서 있어야 할 직업이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Lim[2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간호사는 면허를 받은 이후 간호협회에 가입해야만 면허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고 간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문항별 점수 중 ‘나는 틈틈이 간호전문 서적이거나 간호학회지(논문)을 읽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의 정보교환을 위해 동료 간호사들과의 모임이 자주 있다’,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나는 간호사로 계속 일할 것이다’의 점수가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획할 때 간호사들이 간호학술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권익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은 근무의욕을 상쇄시켜 간호업무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25], 전문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체계와 후생복지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종교, 최종학력, 직위, 급여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an 등[10]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근무부서, 직위, 이직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Hwang과 Lim[25]의 연구에서는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근무년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Ki[26]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 관리자의 직위, 급여가 높은 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으로 간호직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여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25], 직위에 의해 의사결정시 전문가로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는 전문직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높은 전문직업성을 가진 대상자가 윤리적 딜레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낮은 전문직업성을 가진 대상자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자신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2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문직업성이 윤리적 딜레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를 파악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통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및 J지역 14개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Han[2]이 개발한 윤리적 딜레마 도구와 Choo[15]의 전문직업성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중

간정도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 중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생명존중 및 건강의 권리 존중 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를 보면 가장 많은 윤리적 딜레마는 장기매매에 대한 회의, 원칙에 어긋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은 중간정도로 나타났고, 소명의식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딜레마는 전문직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매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의료진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윤리교육이나 상담기관 설립, 법적인 문제 발생 시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개발함으로써 간호사들이 합리적으로 윤리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정도를 깊이있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간호사례와 접목한 간호윤리 지침서와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상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Data Base for the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accessed February, 2018.
- [2] Han S.S., The Nature of Ethical Dilemmas and Decision Making in Hospital Nursing Practice,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2.
- [3] M.P. Aulisto, R.M. Arnold, and S.J. Yjungner, Ethics Consult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The Johns Hopkins press, pp. 5-9, 2003.
- [4] H.J. Park, and M.Y. Kim, "Ethical Dilemma and Coping Type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1, pp. 75-83, 2004.

- [5] I.W. Kang, "A Study on Attitude of Ethical Dilemma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Academic Society*, Vol. 12, No. 2, pp. 48-66, September 1998.
- [6] H.G. Kim,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Ethical Dilemma Cases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9, No. 3, pp. 459-480, 2003.
- [7] H.J. Park, "Ethical Dilemma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128-135, March 2009.
- [8] C. Haddad, "Ethics In Action," *RN*, Vol. 64, No. 5, pp. 25-26, 2001.
- [9] Lee, 2000 S.K. Lee, "The Value of Nurses' Profession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Care Consumer,"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1, No. 2, pp. 119-133, 2010.
- [10] Y.H. Han, I.S. Sohn, K.O. Park, and K.H. K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2, pp. 17-31, August 2010.
- [11] J.A. Kim, "Living as a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4, No. 3, pp. 20-23, 2016.
- [12] S.Y. Lim, S.Y. Kim, and H.M. Choi,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 No. 2, pp. 45-51, May 2015.
- [13] Y.S. Hwang, and E. Cho, "Factors Influencing Nurse Turnover Intention of Senio Convalescence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5, No. 3, pp. 156-167, August 2016.
- [14] R.H. Hall,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 92-104, 1968.
- [15] Choo, H.S., A Study on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16] K.J. Lee and S.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1, pp. 1-15, April 2011.
- [17] Y.K. Yang, and S.E. Oh,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Dilemma and Job satisfaction of One General Hospital Nurses,"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1, No. 1, pp. 109-120, August 2006.
- [18] Kim, Y.S., The Influence of Ethical Education on Nurses' Moral Judgment,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19] E.H. Kim, E.J. Lee, S.J. Hong, "The Ethical Views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 Vol. 13, No 3, pp. 243-254, 2010.
- [20] H.J. Jung, and H.J. Moon, " A Study of Ethical Sense of Value and Discord of the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 No. 2, pp. 349-371, 1995.
- [21] Y.S. Yang, and D.H. Kim, "Nurs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he Level og Delegation of Nursing Activiti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5, No 2, pp. 175-184, August 2013.
- [22] S.H. Han, Y.R. Eom, S.H. An, et al, *Nursing Ethics*, Korean Nursing Association, pp. 185, 2004.
- [23] B. Redman, and S.T. Fry, "Nurses' Ethical Conflicts: What is Really Known about Them?," *Nursing Ethics*, Vol. 7, No. 4, pp. 360-366, 2000.
- [24] M.H. Lee, K.S. Jang, I.S. Kim, et al, *Nursing Profession and Nursing Ethics*, Hyunmoonsa, pp. 295, 2003.
- [25] S.J. Hwang, and K.H. Lim,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Staff,"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21, No. 2, pp. 135-144, December 2017.
- [26] Ki, E.H., Clinical Nurses'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Table 1.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Ethical dilemma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ear)	<40	102(48.6)	2.49±0.46	3.19	.002	3.24±0.40	-1.67	.097
	≥40	108(51.4)	2.29±0.46			3.35±0.49		
Gender	Male	21(10.0)	2.46±0.67	0.71	.477	3.27±0.34	-0.21	.834
	Female	189(90.0)	2.38±0.44			3.30±0.46		
Marital status	Married	143(68.1)	2.31±0.41	-3.11	.002	3.32±0.44	1.18	.238
	Single	67(31.9)	2.55±0.54			3.24±0.47		
Religion	Yes	90(42.9)	2.45±0.51	1.73	.086	3.20±0.40	-2.72	.007
	No	120(57.1)	2.34±0.43			3.37±0.47		
Education level	College diploma	110(52.4)	2.36±0.45	-1.05	.297	3.24±0.45	-2.08	.039
	Bachelor or above	100(47.6)	2.42±0.48			3.36±0.44		
Clinical career (year)	<5	94(44.8)	2.32±0.49	-1.78	.077	3.24±0.46	-1.69	.092
	≥5	116(55.2)	2.44±0.45			3.34±0.44		
Position	Staff	174(82.9)	2.39±0.49	0.38	.702	3.26±0.46	-2.29	.023
	Charge	36(17.1)	2.36±0.35			3.45±0.39		
Income (10,000 won)	<200	94(44.8)	2.28±0.43	-3.14	.002	3.21±0.48	-2.48	.014
	≥200	116(55.2)	2.48±0.48			3.37±0.41		
Turnover experience	No	62(29.5)	2.28±0.46	-2.14	.034	3.21±0.49	-1.74	.084
	Yes	148(70.5)	2.43±0.47			3.33±0.43		
Future work plan(year)	<5	88(41.9)	2.50±0.49	3.09	.002	3.27±0.43	-0.70	.483
	≥5	112(58.1)	2.30±0.43			3.32±0.47		
Knowledge of the Code of Ethics	Know the contents	64(30.5)	2.31±0.51	2.07	.129	3.37±0.50	2.09	.127
	Know it is, but don't know the contents.	138(65.7)	2.43±0.45			3.28±0.43		
	Don't Know	8(3.8)	2.23±.25			3.025±0.33		
Ethical dilemma counselor	Colleague or senior nurse	143(68.1)	2.38±0.46	0.36	.781	3.34±0.42	1.86	.137
	Charge nurse	28(13.3)	2.34±0.53			3.17±0.56		
	Family	27(12.9)	2.47±0.39			3.17±0.43		
	Doctor	12(5.7)	2.38±0.60			3.35±0.53		
Demand for counseling organizations	Absolutely necessary	57(27.2)	2.40±0.52	0.40	.671	3.38±0.47	1.45	.236
	Necessary	137(65.2)	2.39±0.46			3.26±0.45		
	Not necessary	16(7.6)	2.29±0.31			3.32±0.41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Yes	76(36.2)	2.36±0.52	-0.73	.469	3.40±0.44	2.48	.014
	No	134(63.8)	2.41±0.44			3.24±0.45		
Demand for ethical education	Necessary	201(95.7)	2.39±0.47	0.87	.386	3.31±0.45	1.81	.072
	Not necessary	9(4.3)	2.26±0.32			3.03±0.38		

표 2. 윤리적 딜레마 정도

Table 2. Level of Ethical Dilemma

	Categories	Mean±SD
Respect of life and human rights	When active treatment is given to patients who can not recover	2.24±0.64
	When a patient has a wish for life extension but is not	2.28±0.61
	When a caregiver relinquishes the life of an unrecoverable patient	2.26±0.69
	Euthanasia problems of end-of-life patients	2.25±0.70
	Problems related to abortion	2.44±0.74
	Meetings on long-term trading	2.65±0.88
	Lack of awareness of the dignity of life	2.52±0.74
	Total	2.27±0.57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her patients	When you did not tell the truth to the patient	2.33±0.64
	Asking patients to make decisions without giving them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	2.35±0.64
	When the patient is not given the option or decision-making	2.47±0.72
	When you have to tell the truth to a terminally ill patient	2.50±0.75
	When you need to keep your patient private	2.09±0.64
	Conflicts between life-policy and faith	2.31±0.77
	Total	2.47±0.53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professionalism	Problems due to lack of adequate nursing staff	2.60±0.73
	Conflicts due to nursing knowledge and lack of experience	2.42±0.68
	Excessive nursing work beyond individual ability	2.59±0.73
	Problems due to lack of necessary medical resources	2.59±0.74
	Conflicts between patient's needs and physician's instructions	2.35±0.68
	Conflicts over experimental treatment and treatment	2.37±0.79
	Doctor's suspicious treatment	2.46±0.86
	Conference on physician prescribing drugs	2.35±0.79
	Question about doctor's instructions	2.35±0.78
	When performing nursing activities that are not in principle	2.63±0.79
	Left untreated patients	2.39±0.75
Stress from nursing itself	2.49±0.73	
	Total	2.38±0.53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her cooperators	Conflicts due to mutual non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edical staff	2.42±0.72
	Conflicts between nursing colleges and nursing graduates	1.96±0.81
	Physician's non-response to nurse's call	2.32±0.81
	Seeing and ignoring colleagues who do not perform aseptic	2.36±0.76
	When you neglect your colleague's substance abuse	2.33±0.86
	Conflicts with fellow nurses	2.26±0.77
	Relationship with nurses, caregivers, patients, and other departments	2.24±0.69
	Total	2.34±0.49
	Total	2.39±0.47

표 3. 전문직업성 정도

Table 3. Level of Professionalism

Categories		Mean±SD
Autonomy	I decide and participate in my own nursing work.	3.32±0.77
	I do not judge nursing activities without judgment.	3.22±0.76
	I believe my own judgment as to the nursing work.	3.22±0.77
	I can present my department's problems, complaints, and opinions to the boss at the right opportunity.	3.30±0.80
	I solve my own problems.	3.18±0.78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make their own judgment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3.46±0.83
	Total	3.25±0.51
Belief in self-control	Nurses are well aware of the skills of their peers.	3.47±0.69
	I have no ability to assess the work of my fellow nurses.	3.11±0.71
	Nurses around me know each other's abilities.	3.42±0.62
	Evaluation and punishment of nurses should be done by peer nurses or nursing organizations themselves.	3.33±0.83
	Total	3.47±0.61
Sense of public service	Nurses have a greater social contribution than other professions.	3.56±0.79
	Nurses are a good job to pursue as professionals.	3.52±0.88
	Most fellow nurses consider nurses a good job.	3.04±0.87
	Jobs with a high social contribution are rare as nurses.	3.26±0.91
	Nurses must be in society.	3.90±0.82
	The public interest of nursing care can not be overemphasized.	3.52±0.78
Total	3.28±0.57	
Reference professional group	I actively support the goals pursued by our nursing profession.	3.55±0.72
	There are frequent meetings with fellow nurses for information exchange.	2.89±0.86
	The nursing specialist organization should be provided with the education of conservatism.	3.61±0.84
	I am reading nursing specialty books and nursing articles from time to time.	2.78±0.89
	Most of my fellow nurses, including myself, are members of the nursing association	3.87±0.78
	The Nursing Association is committed to the interests of nurses.	2.80±0.97
Total	3.33±0.44	
Sense of mission	The nurse gets pleasure in devoting to patient care.	3.28±0.81
	It is rewarding to devote a lifetime to nursing care.	3.13±0.90
	The right job for me is nurse.	3.01±0.84
	I have a high sense of professional commitment as a nurse.	3.37±0.82
	I will continue to work as a nurse even if my income declines.	2.89±1.02
	The nurses I know come to work with a sense of mission.	3.29±0.84
Total	3.16±0.67	
Total		3.30±0.45

표 4.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evel of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Variable	Professionalism
	r(p)
Ethical dilemma	.191**(.005)

※ 본 연구는 2016년도 조선간호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